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

전화 062-954-9540 팩스 062-952-9540 홈페이지 <http://gitu.kr> 취재협조: 대변인 손규대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 제대로 하려면

- 사업 성공 관건 - 교장 업무 통할 의지, 교육복지사 배치
- 교장 의지 높다해도 교육복지사 배치없이 성공 기대하기 어려워
- 교육복지사 배치율 광주 27.5%, 전남 12%에 불과
- 우리 노조, “교육복지사 배치 노력-교육감 책무” 조례 제안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의 교육 사업이 올해 새학기부터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은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 (경제적 곤란, 학대, 기초 학력, 학교 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여러 기관이 각기 운영 중인 학생지원 사업 등을 재구조화 하는 것입니다.

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 조율하여 학생부, Wee클래스(상담실), 행정실, 교육복지실 등 전 부서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인적·물적 지원이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가 많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사업에서 교장만큼 소중한 직책이 교육복지사입니다. 학교마다 교육복지사를 두어야 합니다. 교육복지사 없이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복지사 배치율을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광주는 27.5%, 전남은 12%밖에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마다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넣고 우리 노동조합이 제안해 두었습니다. 이 제안이 포함되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 모두 학교마다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라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 3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